

지역 매 아 리

고창군, 건설현장 안전점검 · 교육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시간 실외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환 예방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 달 중순부터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비해 역사문화 관광지역계도로 건설사업, 성송 낙양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지역 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와 충분한 휴식시간(1시간근무 10분휴식)제공 여부, 폭염 안전용품(물매트, 목도시, 팔토시 등)착용 등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장시간 실외 작업을 피하고, 일정 간격으로 얼음물과 식염수를 섭취할 것 등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고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고 있는 폭염 대비 행정력을 동원해, 장시간 실외 근무를 하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기센터, 맥류 · 감자 정부보급증 신청 서두르세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에서 오는 가을에 파종할 맥류(보리, 밀)와 감자 정부보급증을 신청받는다.

희망농가는 맥류 오는 17일, 감자 29일 까지 농업소득상당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 품종은 곱보리(큰알보리1호) 18.6톤, 쌀보리(흰찰쌀보리56.8톤, 새쌀보리 10톤), 청보리(영양보리) 24톤, 밀(금강밀5.7톤, 조정밀10톤), 감자(수미)97톤이다.

종자는 9월3일부터 10월5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며 금년도 보리(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청보리(영양보리), 밀(금강밀)는 전량 소득품만 공급이 된다.

보급증 공급가격은 20kg 포대용 큰알보리1호, 영양보리 2만6000원, 쌀보리 2만 7800원, 밀 2만6000원, 감자 3만6800원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웰빙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산 보리와 밀 수요가 꾸준한 증가 추세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배 수확 후 적기 파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전력투구

기재부 방문 예산실장 총괄심의관 등 면담

유기상 고창군수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폭염 속에서도 연일 기재부를 비롯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찾아 지역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에서 3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상 군수는 행정고시 동기이기도한 특별한 인연을 가진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과 안전한 총괄심의관을 만나 성내, 부안, 대산 하수관거사업을 비롯해 고창 자연치유위탁지구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부처별 예산 심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과장들도 잇따라 방문하고 1~2차 심의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감액된 신규사업 6건을 비롯한 계속사업 1건에 대하여 기재부 3차 점정사업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생활하수과를 직접 방문하여 하수관거사업 3건(성내, 부안, 대산)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를 방문하여 내년도 신규지구인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예산반영과 오는 2020년 시행예정인 고창지구 배



수개사업이 기본계획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유기상 군수는 "군민 행복과 고창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기폭제가 되어줄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시 군민께 약속한대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수행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당부'

전국 보건소 접종 가능...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정읍시보건소가 만 65세 이상은 반드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건소는 "65세 이상 연령에서 한번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만으로도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폐렴증, 뇌수막염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또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폐렴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예방접종 대상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이다.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비는 무료이고,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전 시에는 평소 복용 중인 약이나 아픈 증상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구절초힐링테마관 현장 간담회

내년까지 8억원 투입 건립... 힐링체험 등 테마공원 거점공간 기대

구절초테마공원 내에 구절초힐링테마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이하 구절초사업단)이 지난달 31일 부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구절초사업단 운영위원과 지분위원, 실무추진위원, 건축사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절초 힐링테마관 기본구상에서 건축 규모, 배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구절초사업단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 완성도 높은 시설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구절초힐링테마관 실시설계부터 건축, 향후 운영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구절초사업단은 2017년부터 구절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구절초 연구와 상품 개발, 가공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향토사원인 구절초를 생산, 가공, 체험판매 산업으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구절초힐링테마관은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8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으로 이곳은 힐링체험과 휴식 공간이자 구절초산업 홍보·판매 등 구절초 테마공원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하겠다"

부안서 수사전문성 향상 위한 학습모임 '나침반' 운영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최근 경검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경찰 수사전문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사와 내에 학습모임 '나침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학습모임 나침반은 강력 팀, 지능 팀, 지원팀 총 7명의 회원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에 모여, 회원들이 수사한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법 공유, 경찰개혁과제 학습, 최근 관계연구 등을 하고, 발표 내용을 선정하여 매월 1회 학습모임을 발간하여 내부게시판에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특히 부안서는 경검 수사권조정에서 경찰에 1차 수사중결권을 부

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고 수사관 개인의 수사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사역량 강화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민서장은 "수사전문화와 수사의 공정, 신뢰, 청렴성을 확보하고 연구하는 수사관을 육성할 것이며, 전문화된 학습모임 운영으로 수사기법 공유 등 다양한 신중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가 지역 역사와 문화, 주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지형과 지물의 경관 기록사업을 추진한다.

지형 · 지물 경관 기록 보존 나선다

시가지 · 정읍9경 등 11개 분야 100개소 사진 촬영 대상 선정

정읍시가 지역 역사와 문화, 주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지형과 지물의 경관 기록사업을 추진한다.

지형·지물 기록 사업은 현 시점의 정읍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 이와 관련해 시는 정읍9경과 시가지, 역사문화, 농촌·자연·하천·도시기반·산업지역·개발지역·지역상징·행정기관 등 11개 분야 100개소를 기록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대상은 옥정호구절초지방정원과 중앙로 경관거리, 정읍천, 통사마을 전통담길, 정읍역, 내장산위터파크광장, 철단과학산업단지, 백제기요정읍시관광지조성사업지구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100개를 촬영하고, 11월 말까지는 각종 지도와 경관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경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 변천사 자료 등 각종 정책 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도시경관을 시각적 자료로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읍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기록"이라며 "주기적으로 다시 촬영해 급변하는 지역 경관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of the wine, and information about local ginseng products. Includes text like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